청원관련참고자료

Ⅰ. 청원의 요지

Ⅱ. 서울시, 고궁 및 역사지 관광안내 표지 문제점

Ⅲ. 관광안내 표지 우수 사례

Ⅳ. 관광안내 표지 신설 방향

Ⅴ. 관광안내 표지 신설의 기대효과

Ⅰ. 청원의 요지

서울시의 통계 DB에 따르면 2016~2017년의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객은 총 17,241,823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론리플래닛 선정 세계 10대 여행도시로 선정되었다.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는 명동-동대문-남산-고궁-신촌,홍대 순서로 조사되었다. 주요 관광지는 명동 81%, 동대문 62%, 고궁 38.6%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전국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78%를 기록하며 2위인 제주도(20%)와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며 관광의 주요 도시로 기록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문화적으로 널리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 휴가, 쇼핑, 음식탐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 속에서도 고궁 및 역사 유적지의 관광 비율은 고작 38%에 그치며 저조한 비율이다. 한국 문화의 가장 큰 가치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현대의 문화 속에서도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 속에서도 고궁 및 역사 유적지가 함께 존재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큰 매력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문제의 원인 중 핵심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바라보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관광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고궁 및 역사 유적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복궁 등 유명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궁 및 역사 유적지는 관광 안내 표지판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국어 표시가 영어 이외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방향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광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길을 찾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조차도 어려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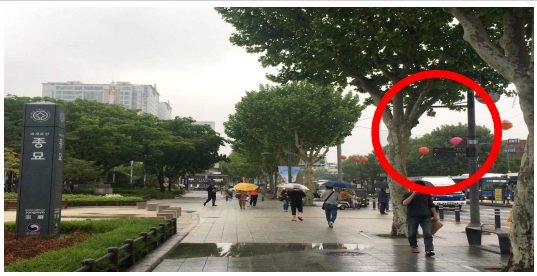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청원을 통해 서울시의 고궁 및 역사지 관광안내 표지 현황을 직접 답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표지 신설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견제시를 통해 인식 개선을 하여 서울시의 문화 관광에 큰 기대효과를 불러오기를 바라며 청원을 하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멋스러움과 고귀함을 내재하고 있는 전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서울시, 고궁 및 역사지 관광안내 표지 문제점

1. 종묘

버스정류장에 문화재 위치 및 정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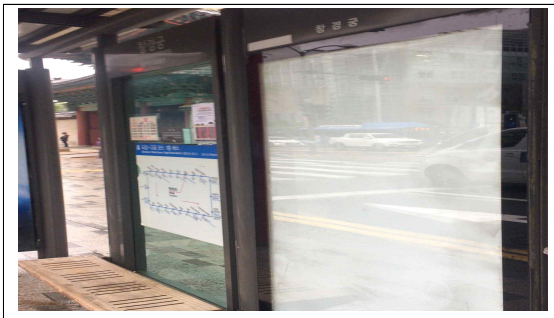
버스정류장에 문화재 위치 및 정보 없음



종묘를 식별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종묘에 대한 안내 표지판. 빨간 동그라미 위치 외에 어떠한 곳에서도 설치 되어 있지 않다.

창덕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창덕궁을 안내하는 어떠한 표지판도 발견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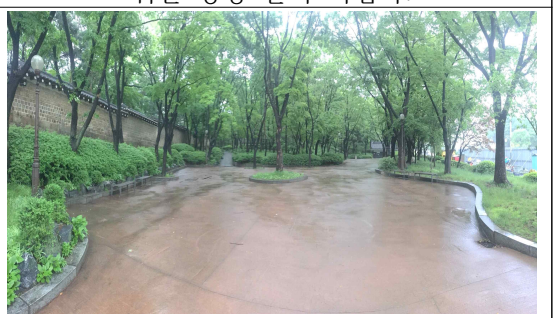
2. 창덕궁과 창경궁



창경궁 앞 버스정류장에는 어떠한 안내 표지판도 발견 할 수 없다.

안국역에서 나온 이후 창덕궁을 방문하기 위한 방향 알기 어렵다.

서울돈화문 국악당을 방문하기 위한 표지는 있지만 근처 창덕궁은 없다.



창경궁이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경희궁

<table>
<tr>
<td>

서대문역에서 경희궁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td>
<td>
경희궁을 찾아가는 길, 경희궁에 대한 이정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td>
</tr>
</table>

4. 선릉, 도산공원

<table>
<tr>
<td>
선릉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나온 후 선릉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찾을 수 없다.</td>
<td>
선릉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나온후 선릉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찾을 수 없다</td>
</tr>
<tr>
<td>
선릉을 찾아가는 길, 선릉에 대한 이정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td>
<td>
선릉을 찾아가는 길, 선릉에 대한 이정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td>
</tr>
</table>

Ⅲ. 관광안내 표지 우수 사례

서울역을 나오면 다음과 같이 문화재에 대한 역사와 위치에 대해 안내해주는 안내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다.

숭례문의 경우 위와 같은 길 안내 표지판을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제를 찾기에 정보가 부족하다.

숭례문 근처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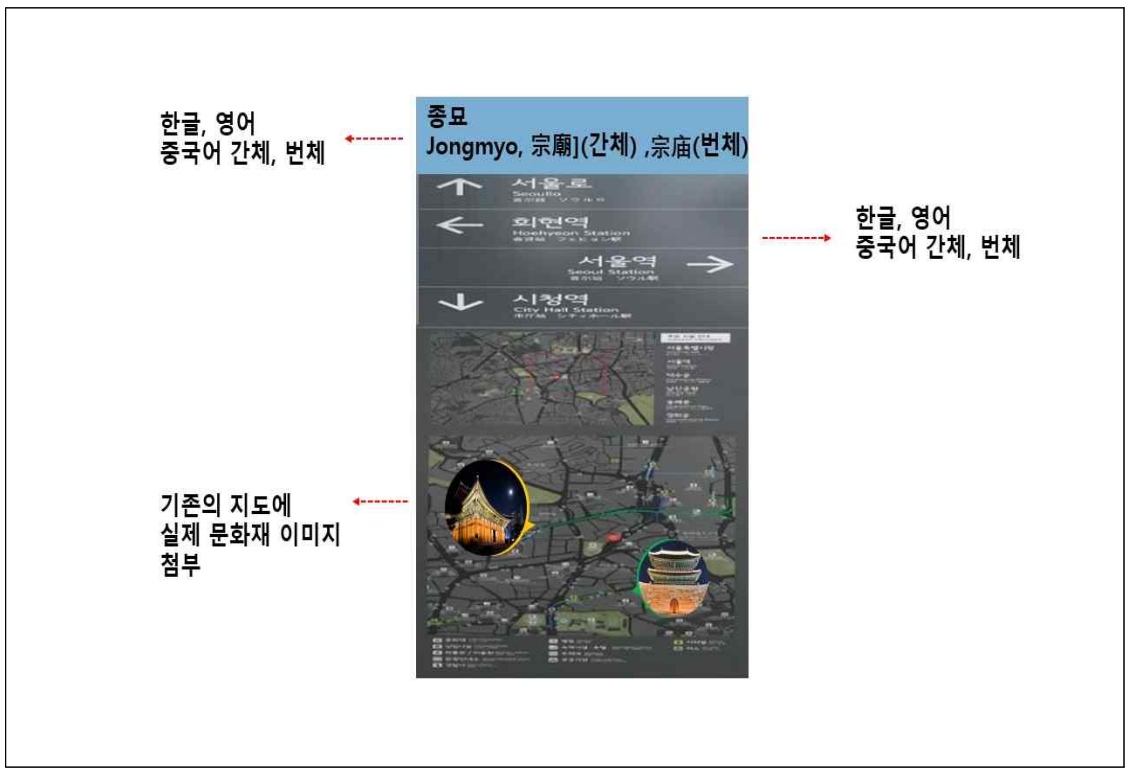
운현궁 앞에 위와 같은 같 안내 표지판을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제를 찾기에 정보가 부족하다.

Ⅳ. 관광안내 표지 신설 방향

1. 신설 관광안내 표지판 소개

<기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관광안내표지판과 그 설명>



<기존의 방향 이정표>

<신설 방향 이정표>

* 기존의 표지판과는 달리 한글, 영어, 한자 간체 번체를 첨부

2. 문화재 주변 지하철 앞 및 정류장 근처 관광안내 표지 신설

< 설치전>

<설치후>

3. 문화재 주변 버스 정류장에 관광안내 표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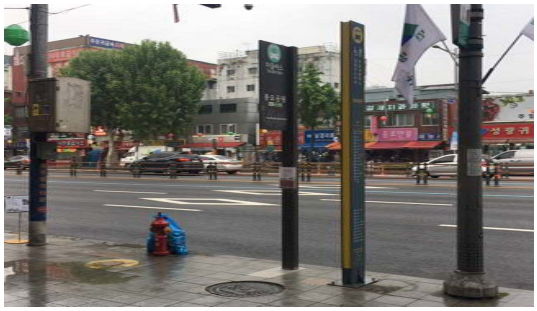
< 설치전>

<설치후>

* 서울역과 같은 지도와 함께 사진과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안내판 신설

4. 문화재를 찾아가기 위한 안내 이정표 신설

< 설치전>



<설치후>

Ⅴ. 관광안내 표지 신설의 기대효과

1. 고궁 및 유적지별 안내 연계로 입장객수의 증가 기대

<표 1 2016년 궁별 방문객 수, 자료출처 서울 DB >

기간		2016년 (단위 : 명)
경복궁	외국인	2,897,935
	내국인	3,122,183
	소계	6,020,118
창덕궁	외국인	532,728
	내국인	1,287,308
	소계	1,820,036
창경궁	외국인	49,749
	내국인	845,388
	소계	895,137
덕수궁	외국인	277,782
	내국인	1,268,344
	소계	1,546,126
종묘	외국인	75,494
	내국인	253,909
	소계	329,403

표 10을 보면 경복궁과 창덕궁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궁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내국인 방문객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궁 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에 비해 작은 편차만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원인으로는 궁에 대한 정보의 부족 및 궁에 대한 관광안내의 부족으로 사료된다. 덕수궁을 제외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및 종묘는 모두 종로구에 위치해 있으며(이 외에도 운현궁 등이 위치해있다) 도보로 15분 내외에 거리에 위치해있다.

고궁별로 각 고궁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신설된다면 경복궁을 방문한 관광객 혹은 창덕궁을 방문한 관광객이 이후 다른 궁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있어 각 궁의 방문객 수가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이후 각각의 궁별 도보로 연결 되는 네트워크에 새로운 사업에 적용 등의 기대를 할 수 있다.

2. 서울시가 보행친화 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

서울시는 현재 자동차 위주의 도시 공간 배분에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었다. 새로운 문화재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신설은 외국인, 내국인의 문화재 방문객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보도를 통해 인근 문화재로의 안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신설 문화재 관광안내표지는 서울시의 보행친화 도시로의 비전이 목표와 일치하며 서울시가 보행친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그림 1.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 인포그래픽

신설 문화재 이정표는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보행친화도시로 나아감에 있어 생기는 4가지 변화' 중 4번째인 '이야기가 있는 서울 거리'와 연관된다. 첫 번째 기대효과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문화재에서 문화재로의 보도의 연결을 특색 있게 꾸미거나, 상점을 배치하는 듯 새로운 사업과 연계하여 더 큰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